* 신준호(데이터사이언스, 4학년)

안녕하세요. 데이터사이언스를 연계전공하고 있는 소비자가족학과 12학번 신준호입니다. 1학년 때 들었던 ‘생활속의 통계’라는 수업 덕에 빅데이터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데이터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서 공부하고 계시고, 미래의 진로를 빅데이터로 잡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우선 자신만의 도메인을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게임’분야를 제 도메인으로 잡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업분야마다 굉장히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분석기법 또한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자신만의 도메인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공부하는 재미가 도메인에서 오게 됩니다. 두번째 드리고 싶은 말은 코딩과 수학을 멀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R Python 뿐만 아니라 SQL, Linux등과도 친해져야하고, 모든 머신러닝, 딥러닝의 수식적인 이해도 하셔야합니다. 물론 완벽히 아는 것은 힘들 수 있겠지만, 적어도 배제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문과 출신이니 인사이트를 찾는 능력만 키우고, 보고서를 구성하는 것만 공부하겠다는 것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매우 좋지 않습니다. 빅데이터라는 분야는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기업들에서도 점차 적용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정하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한다면 좀 더 재밌고 확실한 길을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